

지역 소식통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고창군이 5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1일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2년1월 1일~5월31일중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74호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 기간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부안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8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8월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6월 30일 110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대상은 미공시 개별주택 2호를 제외한 108호이며,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격확인 가능한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공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니어클럽 공사 마무리

건축 면적 161㎡ 규모 지상 2층, 노인 일자리 발굴·교육 사업 전개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과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정읍시니어클럽을 증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정읍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과 훈련까지 전담하는 기관이다.

기존 시니어클럽은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직원 수에 비해 교육실과 상담실 등의 공간이 협소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이에 시는 공간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총층로 208-2 일원 부지에 건축 면적 161.01㎡, 지상 2층 규모로 시니어클럽을 증축했다.

새롭게 준공된 시니어클럽은 '사랑의 도시락' 작업장과 참고 사무실, 교육실 등을 갖췄다.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교육, 노인 인력 D/B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 곤란과 거동 불편 등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34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7회 도시락을 제작해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노인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월 기준 30,977명이다. 노인

비율이 29.3%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다양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니어클럽은 단순 일자리 창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지역 기반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 공약형 10개, 사회서비스형 7개, 시장형 6개, 취업 알선형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1,88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니어클럽 증축으로 시설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로컬푸드 직매장(텃밭할매)가 부안로컬푸드의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변산농협 하나로마트(격포점)에 입점한다.

## 신선한 농산물 전시·판매

부안로컬푸드직매장 '텃밭할매', 변산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부안로컬푸드 직매장(텃밭할매)가 부안로컬푸드의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변산농협 하나로마트(격포점)에 입점한다.

하나로마트 격포점에 부안로컬푸드 "텃밭할매"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부안산 농산물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며 특히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수박, 참외, 복숭아등의 제철과일 및 상추, 고추, 깻잎등의 신선채소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부안군과 변산농협 변산농협

창고 옆 부지에서 8월13일에서15일까지 3일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며, 향후 격포권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는등 부안로컬푸드 확대에 순을맞잡아 협력할 예정이다.

장경준 농업정책과장은 "직매장 추가개장 이커머스를 통한 로컬푸드 판매등 온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관계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안로컬푸드 소비확대를 통한 부안지역 거시시스템 구축 및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 정읍시-지역 농축협, 농업발전 공동상생 머리 맞대

협력사업 발굴 추진회의 가져

정읍시와 농협 정읍시지부를 비롯한 8개 지역 농축협이 지역 농업발전과 공동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행정과 각 농축협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 지역농업 발전을 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내 농축협과 2023년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추진 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청 농업부서 5개 과 팀장과 9개 농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농업·농촌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 농협별, 품목별 특화작물 지정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또 농·축협별 규모화, 규격화, 계약재배, 가공 유통시스템 등 행정과 농축협 간 협업체계 구축과 상생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자물가 인상, 농업 생산경연비 증가 등으로 인한 농업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자재 지원 등 일회성 보조사업은 지양하고 사업별 농협 자원 부담을 10% 이상으로 추진하는 제안사업을 발굴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농축협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정기 소장은 "농가소득 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정읍시와 지역 농축협이 힘을 모아 농업인 다수가 누리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주산사랑 작은예술제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5일 주산면 고산재 일원에서 개최된 제1회 주산사랑 작은예술제 현장을 방문하여 행사 방역상황 확인 및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도래 명석 이용 개시식과 마을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장승 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도래 명석과 장승은 모두 주산면 예술가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어 예술제에 대한 주민의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어 더욱 더 의미가 있었다.

오래 준비한 발표회인 만큼 주민자

치프로그램 생활체조, 노래교실, 풍물·사물놀이, 난타 반은 단연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였다.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하는 수강생들의 얼굴에서는 발표회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지역예술가의 현역중주 연주와 주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특별공연 등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축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 도자기, 사진, 압화공예, 관화, 아크릴화 등 지역 작가들이 나서 재능기부 전시회를 주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정준수 주산면장은 "한여름 무더위



보다 더 뜨거운 주민들의 열정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느꼈다"며 향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채수택)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주도형 축제 주산사랑예술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임을 다짐하고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고창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집중 홍보

고창군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투명페트병이 분리 배출될 경우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탄생되고 의류, 가방, 신발등 비록하여 페트병으로 재생산 가능하게 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또는 투명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지난해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전면 의무화했으나 아직도 제도인식부족, 라벨 제거 불편함 등으로 여

전히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다.

군은 집중 홍보기간 고창군은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현수막,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다각적으로 알려낼 계획이다.

현재 투명페트병·캔 무인 회수기 4대(월곡근린공원 2(제일아파트 앞), 고창읍 실내체육관 2)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활성화되면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체계 구축과 자원순환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